

### 요정 손연재의 '붉은 몸짓'



손연재가 15일 오후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리듬체조 길라소 LG휘센 리드믹 올스타즈 2013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이날 길라소에는 손연재를 비롯해 안나 리자티노비(우크라이나)와 멜리타나 스타니우타(벨라루스)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도 함께 공연을 펼쳤다.

# KIA 6월 대반전엔 '한방 쇼'

나지완·김주형 공격 꼬인다 싶으면 '평평'



최근 7경기서 11개 홈런포로 승수 쌓기



나지완은 안치홍과 김주찬의 연속 볼넷으로 만들어진 1회 1사 1·2루에서 김광현의 140km 슬라이더를 잡아 당겨 장외 홈런을 장식했다. 1회부터 홈런을 얻어맞은 김광현은 4회에도 김주찬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는 등 4이닝 9피안타(1홈런) 1볼넷 6실점을 기록하고 조기 강판됐다.

잡잡했던 최희섭의 한방도 재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8일 넥센 이정훈을 상대로 35일 만에 홈런을 기록한 최희섭은 13일 NC전에서도 2회 무사 1루에서 선취점을 가져오는 시즌 10호 홈런을 날렸다. 최희섭은 이 한방으로 지난 2012년(21홈런)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홈런을 채웠다.

하위타순에서 알짜배기 활약을 해주고 있는 김주형의 파워도 눈부시다.

1군 첫 출전이었던 지난 5월23일 한화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기록하며 달라진 올 시즌을 예고했던 김주형은 주말 SK와의 2연전에서 연달아 공을 장외로 날렸다.

15일 0·3으로 뒤진 5회 무사 1루에서 잡아당긴 공은 비거리 120m의 장외 홈런이 됐다. 평균자책점 1위인 SK 에이스 세튼에게 뽑아낸 값진 홈런이었다. 김주형의 파워로 분위기를 가져온 KIA는 김주찬의 역전 2타점 적시타와 함께 8·3, 6연승을 내달렸다.

김주형은 16일에도 6·3으로 앞선 5회 2사에서 윤희상의 포크볼(134km)을 찍어 이를 연속 장외 홈런을 기록했다. 시즌 5호 홈런. 부상으로 잠잠했던 이범호도 7·6으로 쫓긴 7회말 윤희상에게 투런포를 뽑아내면서 주말 무등경기장에는 홈런쇼가 펼쳐졌다.

상대 주격 의지를 꺾는 '깜짝 홈런'도 있었다. 이용규가 지난 13일 NC전에서 5회 1사 2루에서 이태양을 상대로 우월 투런포를 날리며 2012년 7월18일 두산전 이후 홈런타자가 됐다. 이날 신종길도 부상 복귀 후 첫 선발 출전에 나서 이성민을 상대로 시원한 투런포를 쏘아 올리기도 했다.

시원한 한방과 함께 주춤했던 KIA의 순위 싸움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8승 챙긴 양현종, 승리 도우미 김주찬에게 "피자 한판 더..."

### ① 덕아웃 말말말

▲한판 더 드려야겠어요=15일 SK와의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된 양현종. 선수단에게 피자를 돌릴 생각인데 승리 도우미 김주찬 선배에게는 한판 더 드려야겠다며 김주찬은 이날 '나 홀로' 5타점을 올리는 활약을 하며 양현종 8승의 주역이 됐다. 양현종은 16일 경기에 앞서 넉넉하게 피자 20판을 선수단에 돌렸다.

▲오늘만요=15일 싸늘이 2루타와 싸늘이 3루타를 때린 김주찬, 앞에서 타점을 다 쓸

어담으면 뒤에 있는 4·5번 타자 나지완과 최희섭은 어떻게 하느냐는 농담에.

▲여기가 3번 내가 2번=조규제 투수 코치, 연세대 시절 룸메이트였던 후배 안경현 해설위원을 가리키며, 선배인 정희열 배터리 코치와 함께 셋이 한방을 썼다며.

▲낮에는 속소에서 밤에는 신촌에서 어깨 동무하고 다녔죠=안경현 해설위원, 대학 시절 정희열·조규제 선배와 술도 많이 먹고 다녔다면서.

▲주세요. 빨리=앤서니, 한승혁에게 공이 필요하다면서.

▲구장 무너지겠네=김평호 코치, 15일 김주형의 홈런이 신축구장을 향해 날아갔으며, 김주형은 0·3으로 뒤진 5회 무사 1루에서 세튼의 직구를 받아 장외홈런을 터트리며 8·3 역전승의 발판을 놓았다.

▲형님 나이스 배팅=14일 SK 정근우가 최희섭을 향해, NC전 끝까지 3루타가 인상적이었던면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칭찬을 듣는 것 같아=정근우의 칭찬을 들은 최희섭, 그동안 많이 부진했었다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해외파, K리그 올스타전 뚝다

### 기성용·이청용·구자철·윤석영 합류

해외파 특급 선수들이 올스타전을 통해 K리그 팬들을 만난다.

기성용(스완지시티), 윤석영(퀸즈파크레인저스), 이청용(볼튼원더러스), 구자철(볼프스부르크) 등이 K리그 30주년에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 올스타전 2013'에 참여한다. FC 서울 시절 '쌍용'으로 불리며 팀을 이끌었던 기성용과 이청용이 K리그 무대에서 재결합하고, 전남 드래곤즈의 유소년 클럽 성공 신화를 쓴 윤석영도 이번 행사에 함께 한다. 팬투표와 후보선정위원회 및 감독 추천을 통해 K리그 올스타 명단도 확정됐다. 팀 클래식은 서울 최용수 감독을 사령탑

으로 해 14번째 올스타전 무대를 밟는 전남의 수문장 김병지와 '풍운아' 이천수(인천), K리그를 대표하는 골잡이 이동국(전북) 등으로 꾸려졌다.

팀 챌린지는 경찰축구단의 조동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며 군복무 중인 챌린지 특급 염기훈(경찰), 이근호(상주)와 부천 공격의 핵심 임창근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임하람도 올스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올스타전은 오는 21일 오후 7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팀 클래식

▲감독 및 코치: 최용수(서울) 감독, 박경훈(제주), 김봉길(인천) 코치 ▲GK: 정성룡

(수원), 김병지(전남) ▲DF: 차두리·아디(이상 서울), 홍철·곽희주(이상 수원), 윤영선(성남), 이우희(대전), 유경렬(대구) ▲MF: 이천수·김남일(이상 인천), 박종우·임상철(이상 부산), 예남요(전북), 송진형(제주), 이명주(포항), 보산치지(전남) ▲FW: 이동국(전북), 데안(서울), 김신욱(울산), 정대세(수원), 지쿠(강원)

◇팀 챌린지

▲감독 및 코치: 조동현(경찰축구단) 감독, 이우형(안양), 곽경근(부천) 코치 ▲GK: 유현(경찰축구단), 김덕수(부천) ▲DF: 최철순·김형일(이상 상주), 양상민·오범석(이상 경찰축구단), 손국희(충주), 임하람(광주), 이상우(안양) ▲MF: 염기훈·김영후(이상 경찰축구단), 이호·김재성(이상 상주), 알렉스(고양), 유수현(수원) ▲FW: 이근호(상주), 정조국(경찰축구단), 임창근(부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1000만 유로' 손흥민 레버쿠젠행

손흥민(21)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명문' 바이엘 레버쿠젠에 새 등지를 쓴다. 레버쿠젠 구단은 지난 13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국가대표인 손흥민과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레버쿠젠은 계약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 5년이라고 전했다. 계약에 대한 다른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독일 일간지 빌트 등 현지 언론이 추산한 손흥민의 이적료는 1000만 유로(약 151억원), 연봉은 300만 유로(약 45억원)다. 빌트는 "한국의 보석 손흥민은 레버쿠젠 역사상 가장 비싼 영입 선수"라고 전했다.

함부르크 유니폼을 입고 분데스리에서 3시즌을 소화한 손흥민은 함부르크와 계약기간을 1년 남기고 분데스리가의 강호 레버쿠젠으로 옮기게 됐다.

손흥민은 서울 동북고에 재학중이던 2008년 대한축구협회의 '우수선수 국외 유학 프로그램' 대상자로 뽑혀 함부르크 유소년팀에 유학했고, 2009년 11월에는 이 팀에 입단했다. 2010-2011 시즌부터 분데스리에서

뛰기 시작해 첫해에 3골, 2011-2012 시즌에는 5골을 터뜨려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한국팬에게는 '차별' 차범근(60) 전 수원 삼성감독이 1983~1989년까지 활약한 팀으로도 익숙하다.

차범근 전 수원 삼성감독은 "손흥민이 레버쿠젠이라는 더 좋은 팀으로 옮긴데다 워낙 재능이 출중해 지난해 득점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며 성공 가능성을 낙관했다.

/연합뉴스



뛰기 시작해 첫해에 3골, 2011-2012 시즌에는 5골을 터뜨려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한국팬에게는 '차별' 차범근(60) 전 수원 삼성감독이 1983~1989년까지 활약한 팀으로도 익숙하다. 차범근 전 수원 삼성감독은 "손흥민이 레버쿠젠이라는 더 좋은 팀으로 옮긴데다 워낙 재능이 출중해 지난해 득점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며 성공 가능성을 낙관했다. /연합뉴스